

장유역 한라비발디센터로 입주예정자 협의회

발 신 자 : 장유역 한라비발디센터로 입예협

발송일 : 2023.04.28

수 신 : (주)HL디앤아이한라 및 집과사람씨앤씨 대표이사

참 조 : (주)HL디앤아이한라 및 집과사람씨앤씨 담당자

제 목 : 한라비발디센터로 도색변경요청 및 일정확인 관련 미팅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라비발디센터로 입주예정자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불만 및 변경 요청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 되는 것이 외관 도색입니다. 신축이지만 노후화되어 있어 보이는 황토색, 아파트보다 크게 강조된 김해 도장 무늬 때문입니다.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에션 최근 외벽 색채 디자인을 흰색, 네이비, 짙은 그레이 색을 조합하여 시공하는데 신축인 저희 아파트는 황토색입니다. 아파트의 얼굴인 도색을 신축 아파트답게 HL디앤아이한라의 최신 트렌드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3. 기 변경 요청사항에 포함되어 외부 경관 재심의 문제로 사업 지연이 될 수 있어 변경 힘들다고 답변해 주셨으나 도색 변경만 진행하는 경우 도시 디자인과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전체적인 경관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도색 항목만 재심사를 진행하면 되고 접수한 요청 건은 매월 말에 진행하며 한 달 정도 뒤 심의가 완료됨으로 **변경 절차에 대해선 간단하다**는 회신을 받았습 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하여 정확한 입주민의 요청사항 사실 파악**을 위해 "외부 채색 계획"정보를 김해 시청 및 시공사를 통해 전달받아 입주민들에게 공유하였고 변경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중 50% 이상의 위임장을 받아 공식 대표기구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진행한 **도색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99%도 아닌 100%가 도색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은 "아파트의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황토색은 촌스럽다", "한라비발디라는 이미지 보다 김해시 문양에 너무 초점이 되어있어 보이고 박물관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다", "황토색은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지면 더욱 노후화된 아파트로 보인다" 등 황토색의 이미지와 김해 문양이 너무 크게 디자인되어 불만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선호하는 도색을 조사하였을 때 최근 시공되고 있는 "해운대 한라비발디"와 같은 세련된 느낌으로 대부분이 원하고 있습니다.

5. 아파트 인프라 관련 약재만 들리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근처 1km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이 생긴다 하여 비대위가 형성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시설과 저희 아파트가 가장 가깝습니다. 또한 장유역을 통해 출퇴근을 기대했던 전동 열차 도입은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현재로 불가하며, 아파트 근처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또한 교육부 중투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먼 곳까지 자녀를 차량 통학해야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 입주 예정자들의 인프라 개선과 불만 대응을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호재가 없이 한계가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입주민의 입장에서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약자분들께서 한층 높은 생활 편의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향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 임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직 책	성 명	연락처	E-mail
회장	신영균	010-5122-3808	gyunworld@gmail.com
부회장	최재영	010-4594-3396	-

장유역 한라비발디센트로 입주예정자협의



※ 현재 도색 계획

COLOR PLAN_ 파노라마 1

HALLA VIVALDI



COLOR PLAN_ 조감도

HALLA VIVALDI

